## “청소년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 창원 대광사, 청소년 공연 무대 마련해 지원

경남 창원 대광사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개최됐다.

대광사(주지 서경)는 5월 25일 대광사에서 제21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광사 산사음악회를 열고 청소년을 격려했다. 대광사는 매년 청소년과 지역민을 위한 산사음악회로 청소년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




산사음악회는 대광사의 반야찬불단의 무대로 시작해 청소년 댄스팀인 ‘에이니지’가 흥겨운 음악으로 댄스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청소년으로 구성된 듀엣 보컬팀 ‘비상구’와 걸그룹 ‘페이버릿’ 및 가수 손승연의 공연도 진행됐다.

주지 서경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에서 설법하시기 전 음악의 신 건달바가 음악을 연주하며 법회를 거룩하게 하고 참석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며 “기쁨의 잔치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사음악회에는 창원불교연합회장 월도 스님, 마산 정법사 주지 도문 스님, 대광사 주지 서경 스님 등 사부대중 600여명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전북 꿈나무 ‘끼’를 뽐내다

### 전북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제23회 모악축제

신록이 깊어지는 모악산 금산사에서 전북지역 불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과 숨겨진 기량을 뽐내는 ‘제23회 청소년 모악축제’가 열렸다.

5월 25일 (사)전북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총재 성우)는 전북도내 300여 명의 중고교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운문, 산문, 한국화 그리기, 서양화 그리기 분야로 백일장과 사생대회,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사진>



올해로 23회째 맞이한 청소년 모악축제는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 요소를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환으로 마련됐다. 108배, 명상, 다도, 연꽃 등 만들기, 수묵화 그리기, 목탁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돼 청소년들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어 2부 행사인 음악 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은 노래와 춤, 악기 연주 등 동아리 활동으로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생명 가치 알리는 글쓰기

### 부산 생명나눔, 제12회 시 · 산문 백일장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5월 25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제12회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을 개최했다. 백일장은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생 150여명이 동참했다.

백일장 시작 전 학생들은 생명존중 서약서에 서명하고 생명 가치를 존중하면서 자살하지 않을 것을 선서했다. 백일장에서 중등부는 ‘우물’과 ‘불꽃’, 고등부는 ‘마중물’과 ‘미래’가 주제로 제시됐다.

이경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운영이사는 “글을 쓰는 것은 문화 예술 활동 가운데 최고 수준을 요구한다. 삶에 대한 깊은 사고의 깊이가 요구되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글쓰기를 통해 생명 가치를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봉축탑 밝힌 기도 성금, 이웃에 회향

### 부산진구불교연합회, 진구청에 성금 570만원 전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진구불교연합회가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 기도하며 모은 성금을 부산진구청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부산진구 중심가인 서면 영광도서 맞은편 거리에 봉축탑을 밝히고 기도를 이어왔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며 마음을 모은 십시일반 후원금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회장 세운)는 5월 27일 부산진구청장실에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회장 세운 스님과 회원스님들을 비롯해 서은숙 진구청장, 장강식 진구의회의장과 신도 10여 명이 동참했다.

진구불교연합회 성금은 총 570만원으로 지난 봉축을 축하하며 부산 서면거리에 불을 밝힌 점등탑 아래서 진행한 기도 탁발성금이다. 거리를 오가던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것이다.

진구불교연합회는 4월 25일 부산 영광도서 맞은편 로터리에서 ‘2019 부산진구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개최했다. 점등식은 부산진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것으로 점등식 봉행 후 5월 11일까지 매일 석가모니불 정근을 진행, 릴레이기도를 이어왔다.

동참한 스님과 불자들은 기도 외에도 시민들에게 염주를 나눠주며 봉축을 함께 축하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함께 기도했고 보시함에 성금을 넣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간에 점등탑 훼손 사건이 발생했지만 진구불교연합회 스님들이 가해자를 용서하며 훈훈함을 더 했다.

**봉축 의미 알린 기도 정근에**
**시민들 함께 동참 행복 발원**
**봉축탑 훼손 사건도 있었지만**
**가해자 용서하고 불자 거듭나**

석가모니불 정근기도 수행 중이던 5월 8일 점등탑이 고의에 의해 훼손됐고, 삼광사 신도가 다음날 오전에 발견해 연합회에 소식을 알렸다. 봉축탑을 훼손한 가해자는 10일 경찰에 검거됐다. 가해자는 50대 회사원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님들은 그를 인도해 참회할 것을 권유하고, 가해자는 삼광사서 1080배, 기장 보광사서 3000배로 참회하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오계에도 서약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는 5월 27일 부산진구청장실에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성금은 봉축 기간 밝힌 점등탑 아래서 기도하며 모은 것이다.

회장 세운 스님(삼광사 주지)은 “그 사람이 참회하고 삶의 전화위복으로 삼아 불자로서 불법을 만난 계기가 됐다면 다행”이라며 “그는 삼광사와 보광사서 참회의 절을 올리고 이번 계기로 부처님께 더욱 마음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진구불교연합회 봉축탑 기도 자비성금은 부산진구청에서 진행하는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으로 회향된다.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2015년 협약해 진행하는 소액기부운동이다.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누적 후원금은 약 8억 원으로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각 동별 특화사업 추진 등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서은숙 구청장은 “저녁에 스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뵙곤 했는데 시민들의 정성이 모인 성금을 전달해주셔서 무엇보다 의미가 크며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회장 세운 스님은 “구민들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모은 성금이라 저희도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문화행사도 더해 진행한다면 봉축의 의미도 뜻 깊게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탁발 수행과 기도에 대해 강조하며 “봉축탑을 밝히며 탁발하고 기도하는 수행문화가 전국 곳곳에 퍼져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고득락 향한 ‘득락전’ 門 열다

### 불교총지종 부산 정각사 ‘득락전 헌공 가지불사’

살아 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가는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부산 정각사 득락전이 완공됐다. 정각사는 아미타 삼존불 점안 법회를 봉행하며 “총지종 대표사원이자 밀법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불교총지종 부산 정각사(주교 도현 정사)는 5월 24일 득락전에서 ‘득락전 헌공 가지불사(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아미타부처와 협시불인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제막식을 통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으며, 대중은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함께 비밀가지의궤를 봉행하며 마음을 모으고 합장했다.

이어 종령 법공 정사와 인선 정사, 정각사 주교 도현 정사가 헌화 및 훈향했으며 이후 △참회 △오대선원 △람자관 △경과보고 △법어 △봉축사 △축사 △인사말 △감사패 증정 △축가 순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불교총지종 부산 정각사는 5월 24일 득락전에서 ‘득락전 헌공 가지불사(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공 종령정사는 법어를 통해 득락전의 의미를 설명하며 원정 종조의 가르침과 유훈을 대중에게 전달했다.

종령 법공 정사는 “40여 년이 지난 오늘, 종조님의 유지를 받들어 커다란 결실을 보게 됐다”며 “전통사찰에서는 아미타불을 모신 곳을 극락전 혹은 미타전이라 하지만 종조님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세계를 상징하는 득락전이라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살아서는 이고득락이며 죽어서는 왕생극락을 얻는 완전한 열반을 의미하신 것”이라라고 설명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정각사는 총지종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며, 정각사의 역사가 곧 총지종의 역사라 할 만큼 총지종 대표 사찰이다”며 “정각사에 아미타삼존불을 모시고 이제 명실상부한 밀법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부산 정각사 주교 도현 정사는 “정각사 득락전 헌공가지불사에 동참해 준 모든 대중에게 감사드린다”며 “불사 동참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세세생생 가득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득락전은 정면에는 아미타부처를 주불로 봉안했으며 좌우 통로 앞에는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배치해 어디서든 예불할 수 있는 도량을 마련했다. 삼존불에는 모두 감실을 구성 배치했으며 밀교의 만다라 세계를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1114 원불이 함께 안치돼 있으며 정각사 2층에 조성됐다. 규모는 300㎡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